



비종교인 염두에 둔 대중용 전문사전 항목수만 만여개 넘는 건실한 내용

—「기독교사전」 펴낸 한영제사장

이 책 그 사람

차츰 활기를 띠어가는 전문사전출판은 그동안 축적된 우리 학계의 역량을 반증하는 증표 중의 하나요, 한편으로 사전출판에 대한 기존 출판계의 의식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최근의 전문사전들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해제에 있어서는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사전독자층’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955년 대구에서 서점으로 출발, 지금까지 기독교 관련서적만을 꾸준히 출판해온 한영제씨(65, 기독교문사 대표)는 국내 몇 안되는 사전전문출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굵직한 종교사전만도 9종이나 만들어냈던 그가 가장 최근에 펴낸 「기독교사전」은 “기독교 사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편찬계획”의 일환으로 기간사전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비종교인까지 염두에 둔 ‘대중용사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확히 말하면 평신도와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한편의 교양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형식면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4·6판 외국어사전 부피의 이 사전은 우선 ‘실속있는’ 내용으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성경인명과 지명, 성경지도와 성경도량형을 비롯해서 국내외 교회사, 선교단체와 교파·교단, 다양한 신학사조와 신학용어 및 신학사, 그리고 교회건축 등 폭넓은 기독교 예술을 망라하고 있는데, 항목수만도 만여항목에 달한다.

한영제씨에 따르면 이 사전은 1985년에 완간된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57년 첫사전 출간 이래 가장 ‘힘들여’ 만들었던 이 백과사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한 축약이 아니라 그 사이 축적된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대상층에 맞는 평이한 내용서술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원고작성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음은 물론이다.

“비록 소사전이긴 하지만 특히 성경연구의 기본 항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다”는 그는 “평소 단행본 몇백권보다는 한질의 사전이 더 의미있다”는 독특한 출판관을 지녀왔다. 예의 백과사전 개정·증보판과 기독교신학사전, 역사사전 등의 분야별 전문사전을 계속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의 ‘고집’을 짐작할 수 있다.

창업 당시부터 출판업 자체를 자신의 종교생활의 일부로 생각해왔다는 그는 현재 기독교관련자료의 ‘보고’로 소문난 자료실을 기독교문사건물 지하에 확보해놓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의 사전발간작업에 있어 이 자료관의 역할은 거의 결정적이었던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이다. 청계천과 인사동 고서점가에서 유명한 ‘수집광’인 그가 모은 자료들 중 관련도서들만 해도 7만여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창립 40주년이 되는 95년에 따로 전시실을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평북 구성 생으로 “전쟁중에 부모님을 못모시고 월남한” 그는, 이밖에도 이전의 양로원을 운영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정소연 기자



韓日양국 기저문화의 특성 비교분석 ‘경제문화’ 고찰에 특히 큰 비중 뒤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 낸 한준석씨

이 책 그 사람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의 개입만 배제된다면 때때로 한 나라의 국민성이나 문화적 특성 등은 그 나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준석씨(61, 미래연구회 대표간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저문화를 독창적 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양국 이해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최근 펴낸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다나출판사)의 제목이 곧 그가 사용한 개념이다.

“87년 ‘일본경제사회학회’ 연차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양국의 경제문화 비교와 그 장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었지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책은 그때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단일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 나라마다 우세한 문화요소가 있고 이를 역사속에서 추출하여 유형화시킨 것이지요. 양국 문화의 우월을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는 의도로 책을 내게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武의 문화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군사문화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소국가들이 분립되어 평화와 교전을 일삼는 가운데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었던 일본의 ‘에도시대’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질서체계존중, 실질존중, 과학적, 수량적, 합리주의, 철저함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유교적 전통과 가치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文의 문화는 개인자유선호, 명분존중, 추상적, 총체적,

권위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한·일 양국의 기저문화를 찾아내기 위해 양국의 지리적조건, 기후, 풍토, 생김새, 언어, 역사발전의 특성 등에서 차이와 동질성을 분석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된 양국 기저문화의 특성이 ‘공업화와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변혁’으로 정의 내려지는 근대화의 수용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그의 두번째 관심이 놓인다. 서면호를 불태우고 선원을 살해한 조선인과 영국의 배에 몰려가 그 위력의 비밀을 캐내고자했던 일본인의 차이는 근대화의 수용에 대한 양국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 특히 유교의 통제 및 명성왕후의 살해사건에서 한국의 자주적근대화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는 대목은 흥미롭다. 이러한 바탕하에서 그는 양국 경제의 성장과정과 현재의 모습,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들을 통찰, 분석하고 있는데, 대통령경제담당비서관, 해운항만청장 등 경제관계 공직자로서 재직했던 30여년간의 실무경험과 경제학자로서의 탄탄한 이론, 언어,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대한 그의 폭넓은 관심 등이 논의의 깊이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감정이나 시각의 편향을 배제코자한 객관적 기술태도와 논리적 구성, 다각적이고 풍부한 자료의 제시 등도 이 책의 미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양국의 누구에게서도 객관적으로 정리된 바 없는 식민시대에 대한 평가와, 상호불신의 기폭제가 되었던 역사왜곡사건에 대한 상세한 고찰 등은 아사히 신문에 게재되었던 서평에서 “親日이 아닌 知日을 만나게 됐다”는 평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 박남정 기자



기본적인 예절생활 모은 '예절사전' 간략한 예문과 삽화로 이해 도와

—「어린이의 바른 예절교실」 펴낸 차원재씨



유교식 예절에 익숙한 어른들의 눈에 비친 요즘 아이들의 행실은 '버르장머리'가 없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탐탁치 않은 점을 고쳐주려고 들면 막막하기만 한 것이 예절교육.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교육적 관심 밖으로 떠밀리난 예절교육을 사전형식으로 묶은 「어린이의 바른 예절교실」(웅진출판)은,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부지런해야 단정한 몸차림을 할 수 있다’거나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는 등의 예절지침을 예문을 들어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는, ‘님’을 붙이면 어색해지는 말, 특별하게 쓰이는 어투와 같이 실제행동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나누어 담겨 있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끔 했다.

스스로 사전처럼 곁에 두고 읽혔으면 한다는 저자 차원재씨(서울 장위국민학교 교장, 57)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맡았던 역할이 핵가족화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나 학교에서 예절교육에 무관심해 왔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예절부재현상’ 속에서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19살의 나이로 들어선 교육자의 평탄하지 않은 길을 이제 40년이란 세월로 다져온 그가 교육의 현장에서 쓴 이 책이 지닌 의미는 예절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향한 ‘호통’ 같은 것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바른 어법으로 조리있게 정리해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는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작은 단체생활도 바르게 못한다면 사회와 국가라는 단체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도덕시험점수는 곧잘 만점을 받아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차원재씨는 자신의 ‘작은’ 정성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고유한 예절정신이 있음에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못내 못마땅한 그는 어떤 교육에도 우선하는 예절교육이 지식의 흡수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종결되는 ‘태도의 변용’으로 옮겨야 한다고 믿는다.

60년대부터 동화를 발표한 작가이기도 한 차원재씨가 작가로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환경경해로부터의 인간구제’라는 문제인데, 이와함께 어린이들의 ‘침예한’ 관심사인 이성친구문제를 소재로 한 동화도 구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걱정상담실’에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30% 정도가 이같은 이성문제에 관한 ‘호소’라고 전하는 그는 이밖에도 시험철이면 급증하는 성적노이로제, 친구와의 문제가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어린이 문제연구’라는 제목의 수필도 쓰고 싶고, 장학기금도 조성하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교육생활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교정을 바쁘게 그리고 기쁘게 오고간다.

—최태원 기자



살아있는 ‘깨달음의 靈性世界’ 추구 상징 속에 담긴 메시지구조 파악

—「만다라」 펴낸 김용환교수



봄빛이 부드러워 가만히 눈 감으면 잠시 꿈과 현실이 혼돈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無我境이 잠시 지속된다.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신비체험일 게다. 깨달음의 짧은 순간은 쉽게 잊혀진다. 이성의 힘이 단단하다면 신비체험의 실체를 현시화시킬 수도 있다. 정신세계의 메시지를 담은 ‘만다라’라는 독특한 주제 하나만으로 한편의 책을 묶어낸 김용환교수(충북대 윤리학과)는 십여년 전 겪은 신비체험을 회상한다.

“합천 해인사 길암상자에서 여름을 지낸 적이 있었지요. 문득 새벽 독경소리에 잠이 깨어 명상하던 중 바라보던 불상이 미소를 지으며 살아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마비되며 의식세계가 변화하는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그때의 그 체험이 인도의 정신세계로 나를 몰고갔고, 관련된 책과 문헌속에 파묻혀 있다보니 어느새 인도의 요가사상에 관한 지식체계가 내 삶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붓다의 깨달음’의 자리가 보존돼 있는 인도에서 영성체험의 살아있는 모습, ‘만다라’를 본 감흥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엮어졌고 이 책 「만다라」(열화당)의 상당부분 내용으로 담겨졌다.

‘만다라’는 명상을 통한 신비체험의 산물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한다. 소리를 통해 정신감흥을 전하는 ‘탄트라’도 이와 유사하다. 흔히 감각은 깨달음을 추구할 때 피해야 할 대상인데, 감각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한다니 역설적이다.

“만다라 도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성체험의 표징입니다. 현란한 색채와 심리적 중흥을 표상하는 정치한 구도 속에 진리에 대한 시각적 인지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책에서 이러한 만다라의 전통적 흐름과 거기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 의례를 통한 몸짓의 열기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혀려 했습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신비체험은 원형적인 이미지 심상을 낳고 그것은 문화적 공통성을 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탱화’가 독특한 이미지를 표상하면서 종교적 메시지로 전수된다. 반면에 서양사람 같 구스타프 융은 정신치료의 관점에서 만다라를 파악한다.

“만다라는 다원주의적 구조라든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 상호존중의 가치관을 내포합니다. 이교도의 신까지 포용하는 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것이 곧 민주사회의 원리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다라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내용은 수요일마다 있는 서울대에서의 ‘명상과 자아’ 강의시간에 더욱 진지하게 토의된다. 때론 학생들로부터 자아중심의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고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김용환교수는 명상이 수직적 깊이과 수평적 확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다는 믿음을 전달해주고자 한다. 이성의 빛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영적체험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감춰진 욕망 아닐까.

—김지원 기자